

보도시점 : 2025. 9. 28.(일) 11:00 이후(9. 29.(월) 조간) / 배포 : 2025. 9. 26.(금)

“회원가입 한번으로 장애인콜택시 호출”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충청권에서 실시

- 통합 회원가입 한번으로 대전·세종·충북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 29일부터 유선, 인터넷, 휴대폰 앱으로 통합예약·배차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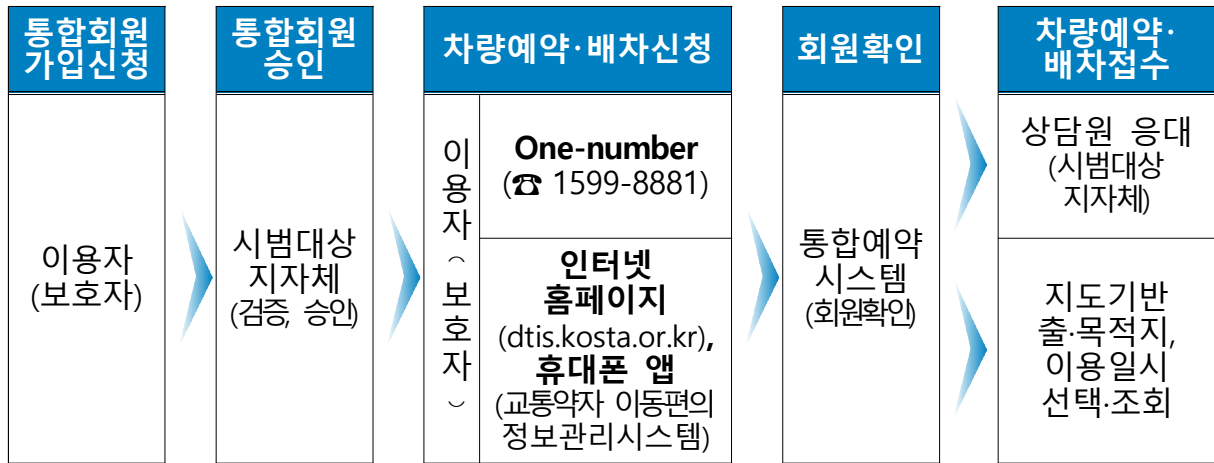
<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사례 >

- ◆ 세종에 거주중인 중증보행장애인 A씨는 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루는 A씨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대전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였다. 다음날 대전에서 세종으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대전시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A씨는 대전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지금 회원가입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원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어 오늘 세종으로 돌아오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회원가입 한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 29일부터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현재 중증 보행 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 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새롭게 각 지역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동지원센터별로 유선 번호가 달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24년 말 구축 완료하였고,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예약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dtis.kotsa.or.kr, 이하 누리집) 혹은 휴대폰 앱(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안드로이드·IOS)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통합회원으로 승인을 받으면 시범사업지역인 대전, 세종, 충북 전체 시·군(11개)*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가입된 이동지원센터에 통합회원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dtis.kotsa.or.kr) 혹은 휴대폰 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에 거주 중인 중증 보행장애인 4만 8천 여명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중증 보행장애인도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 이용을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 회원가입 후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번호 통합예약 전화번호(☎ 1599-8881)를 통해 차량을 예약하거나, 원번호 통합예약 전화번호(☎ 1599-8881), 누리집(dtis.kotsa.or.kr),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즉시 배차받을 수 있다.
- 모든 차량에는 동승자(보호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이용요금과 요금 결제방식, 운행지역은 현행 지자체별 기준을 따른다.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회원가입 및 이용절차 >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각 개선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772)
		담당자	주무관	노운용 (044-201-3805)
전담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연구처	책임자	처 장	전연후 (044-201-7269)
		담당자	연구위원	김주영 (054-459-7450)

충청권(대전·세종·충북) 장애인콜택시 통합예약 시범사업 실시



통합예약 시범사업은?

- **통합 회원 인증 관리**
통합회원가입 시, 대전·세종·충북 모두 회원 등록
- **원스톱 신청 청구**
대표번호 1599-8881 간편하게 콜 예약·즉시배차 가능

이용방법

- **유선** 1599-8881
- **홈페이지** dtis.kotsa.or.kr
- **전용앱 다운로드**



가입방법

- **기존회원** 시범사업대상자 선정안내 ▶ 통합회원 가입신청
(대전·세종·충북) ▶ 승인처리 ▶ 시범사업 참여
- **신규회원** 홈페이지(dtis.kotsa.or.kr)에서 통합회원 가입신청
▶ 승인처리 ▶ 시범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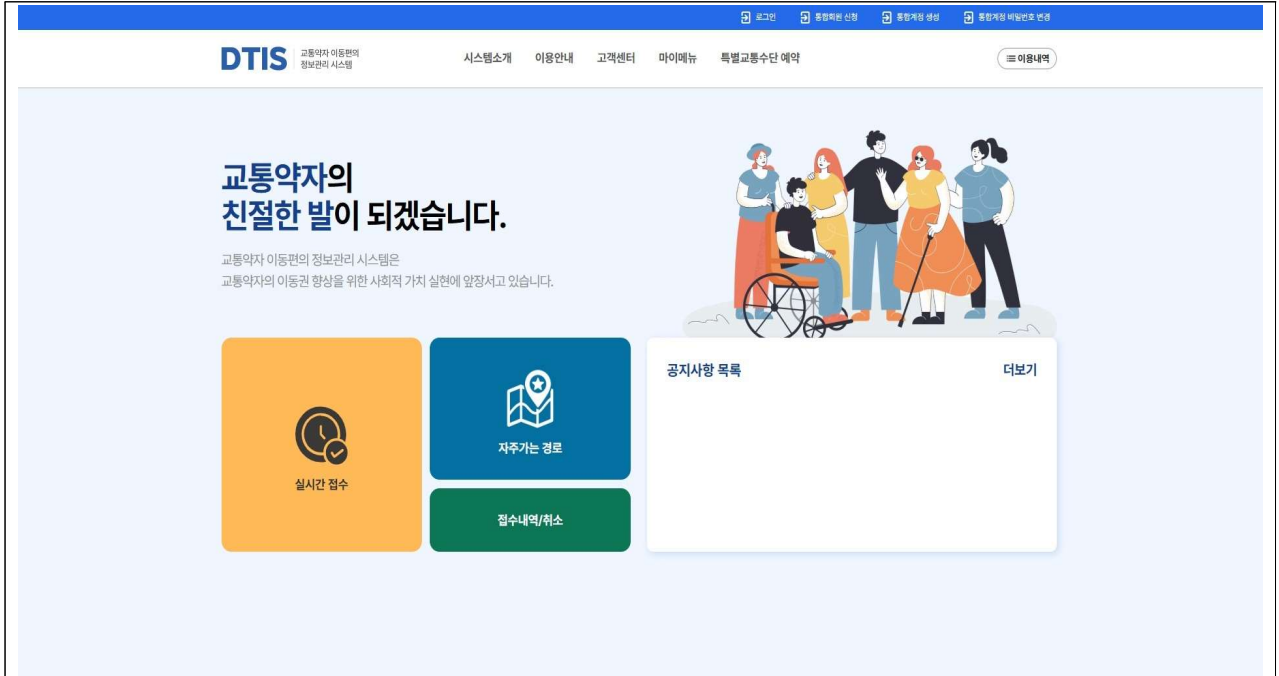
- **오픈 일시** 2025. 9. 29(월) 09:00
- **가입 대상** 대전·세종·충북권역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전국 중증보행장애인
- **이용 혜택** 통합회원 가입 시 대전·세종·충북지역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 **예시** 출발 시 충북차량 이용, 올 때는 대전차량 이용 등 가능



참고2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접속방법

□ 웹사이트(dtis.kotsa.or.kr)



□ 휴대폰 앱(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안드로이드·iOS)

